

송영길 “군공항이전 광주·전남 메가시티 관점 논의 필요”

“공공의료원 손익계산 접근 안돼, 예타면제 돼야”

“에너지공과대학설립, 3월 반드시 통과시킬 것”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서는 송영길(인천 계양구을) 의원은 15일 “광주 군공항 이전은 광주·전남 통합 메가시티 플랜을 가지고 심도 깊게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군공항 이전의 4차협의

체 논의가 뜨거워 감자 돌리듯이 핑퐁 게임으로 가면 안된다”면서 “제가 당의 책임을 맡게 되면 4차 협의체를 복원하고 부·울·경 메가시티처럼 가덕도 신공항과 배후도시와 연결하는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광주공공의료원 설립과 관

련해 “공공의료원은 손익계산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면서 “공공의료원은 취약계층 공공의료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료원 설립은 코로나19 외에도 제2, 제3의 질병이 일상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공공 의료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또 “에너지공과대학설립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총괄선대본부장으로서 당시 이낙연 전남지사, 신정

훈 전 의원 등과 함께 대선의 주요공약으로 채택시켰다”면서 “3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학생모집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4·7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뜻과 함께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와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는 장관과 국회의원 4선을 역임한 검증된 분들이다”면서 “특히 최초 여성시장이 탄생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최윤희기자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서는 송영길의원은 15일 광주시의회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은 광주·전남 통합 메가시티 플랜을 가지고 심도 깊게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공직자 투기·부패근절 대책 TF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與 “미꾸라지 한 마리도 안 돼” LH 방지법 최우선 처리 약속

민주, 공직자 투기·부패 근절 대책 TF 첫 회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은 15일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입법은 미꾸라지 한 마리 빼지않고 수 없는 튼튼한 그물망이어야 한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재발방지 5법’의 최우선 처리를 약속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민주당 공직자 투기·부패근절 대책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별 입법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LH 재발방지 5법은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직자윤리법 ▲부동산거래법 ▲이해충돌방지법 등이다.

그는 “이번 기회에 공직사회에서 투기를 비롯한 부패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번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제안한 3기 신도시 토지 소유자 전수조사와 토지구획개혁위원회(가칭) 설치에 대해서도 정부

와 협의하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진선미 의원은 “국민 여러분께서 그만큼 분노하셨으니, 분노의 힘을 모아 이제 대한민국이 새롭게 ‘부동산 투기 왕국’이라는 오욕을 넘어서는 새롭게 더 나아가는 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제대로 대책을 마련해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LH 재발방지 5법을 3월 국회 내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TF 회의가 끝난 뒤 “제반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 법적 조인을 할 수 있는 그룹과의 간담회나 토론회를 통해 (입법을) 잘 준비해나가겠다”며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민변, 경실련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이 있으면 받아서 법안 소위 과정이나 TF에서 논의를 충분히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김종인·안철수 난타전... “토론도 못하는 사람” vs “옹고집”

“자신 없는데 뭘 출마하려하나”
“일정 맞춰 토론하자 했을 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 야권 단일화 문제를 두고 원색적인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안 대표를 겨냥해 “단일화 과정 속에서 후보들 간 일정한 토론을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기피하는 속셈이란 것은 이뤄질 수 없다”며 “토론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서울시장 후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우리 당은 오세훈 후보를 2번 국민의힘 오세훈으로 정해놓은 거지 자연인 오세훈이 아니다”라며 “상대방도 마찬가지, 자



기 당 이름을 내놓은 후보지 자연인 후보가 아니다. 이런 일을 무시하고 (단일화 과정에서) 판짓을 할 것 같으면 그건 상식에 맞지 않는 짓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국민의당 측이 야권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당명과 기호를 빼자고 제안한 데 대해 “투표장 가면 투표용지에 어느 당 기호, 몇 번 쓰여있는 것 아닌가. 그걸 다 빼자는 게 상식에 맞는 소리인가”라며 “그렇게 자신이 없는 사람이 뭘 출



마하려 하나”라고 일갈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 야권 단일화에서 국민의힘 후보의 승리를 강조해 온 만큼, 최근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를 보이는 오 후보의 기세를 그대로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오 후보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에서 안 후보를 앞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야권에서 오세훈 후보를 안철수 대표든 단일 후보로 나오더라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이긴다는 여론조사까지 더해지면서

원내 102석을 가지고 있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쉽게 서울시장 후보 자리를 양보하기도 어려워진 상황이 됐다.

이에 안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종인 위원장 발언은 정말 모욕적”이라면서 “저는 단일화 일정에 맞춰 토론을 하자고 했을 뿐, 토론을 피한 사실이 없다. 토론을 오전, 오후 하루에 2번씩 해도 좋다고 했다”고 격앙된 반응을 내놓았다.

안 대표는 “어디서 엉뚱한 소리를 듣고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지, 도대체 그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며 “야권 단일화 상대에게는 서로 존중하는 것이 단일화 취지에도 맞고 양쪽 지지층을 상처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상식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많은 야권 지지자들이 김 위원장의 그런 옹고집과 감정적 발언에 환멸을 쉬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서동용, ‘여수·순천 10·19, 제주 4·3’ 평화인권교육 활성화 업무 협약식 참석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최근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및 각 교육청 관계자들과 함께 여수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여수10·19 및 제주4·3 평화·인권교육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석웅 전남교육감과 이석문 제주교육감에게 서동용 의

원이 “역사적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 전남교육청과 제주교육청이 협력하여 평화·인권교육을 시행하자”고 제안한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양 교육청은 열린 협약식에서 여수 10·19 및 제주4·3 평화·인권교육 관련 기념행사, 계기수업, 체험학습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서동용 의원은 “여수10·19와 제주

4·3은 국가폭력에 의해 국민이 희생당한 가슴 아픈 역사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두 지역의 학생들이 교육 현장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생생하게 느끼는 기회가 마련될 기대한다”며 “양 교육청 간 든든한 협력을 바탕으로 평화·인권교육이 내실화되고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 직통전화 010-2400-7774

☎ 주문팩스 062-946-0053